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김홍식 장로 / AFF USA 이사장

변두리의 은혜와 축복

우주 항공의 기술은 계속 발전되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았던 꿈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 한편 인간이 우주에 나가면 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치 지구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태가 된다. 걷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뼈가 급속히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약간의 충격에도 부러지기 쉽다. 예로 성인 어른이 다리 혹은 척추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골밀도가 급속히 약해지고 혈중의 칼슘이 소변으로 나가면서 신장결석이 생기기도 한다. 골다공증은 그 자체로도 큰 문제이지만 몸 전체의 건강을 말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 비타민 D 섭취와 뼈에 무게가 실리는 근력운동이 도움이 된다.

뼈가 약해지는 원인 중에서 부(副)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다. 부(副)갑상선은 보통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상선 뒤에 위치하는데 위치적으로만 갑상선과 가까울 뿐 기능은 전혀 다르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와 신장에 작용하여 칼슘과 인산의 혈중농도를 유지시켜준다. 부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높아진 혈중 칼슘은 근육 무력증과 신장 결석을 일으킨다. 부갑상선은 매우 작지만 갑상선보다 몸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몸에서는 부(副)라고 붙여진 장기들이 적지 않다. 아마도 크기가 작고 잘 보이지 않아서 옆에 있는 각두기 정도로 취급당해 온 장기들이지만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부신(副腎)도 그 한 예이다. 신장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기능은 신장과 전혀 다르다. 콩팥 위에 삼각형 모양의 내분비선이며 약 5cm 정도인데 작다고 무시하면 몸에 큰 이상이 생긴다. 부신 바깥 부분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알도스테론 호르몬을 만들고 안쪽 부분에서는 소위 스트레스를 건디는 아드레날린을 만든다.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염분과 체액의 양을 조절해주며 혈압조절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혈압 상승과 심장의 박동을 증가시켜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며 간과 지방조직에 저장되었던 포도당과 지방산 등을 동원하여 근육 등 필요한 장기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 매우 작은 장기라서 부(副)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결코 적지 않고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서도 살아남게 해주는 핵심적인 장기이다.

사람 사는 데도 앞에서 나서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자리가 중요함을 우리는 새삼 느낀다. 대통령 옆에 있는 부(副)통령은 물론, 참모들의 중요함도 그렇고, 가정, 직장, 단체에서 대표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잘 움직여지지 못한다.

이민자들인 우리는 주류가 되지 못하고 부(副)라는 변두리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아니면 이 사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겠는가? 잘 안 보인다고 주눅이 들 필요는 없다. 우리는 부(副)갑상선, 부(副)신 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국에 흠으셔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하신 것에는 큰 뜻이 있다. 어려운 이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 변두리의 체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이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더욱 큰 기쁨을 누릴 때이다. 주(主) 되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안고 아프리카의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재훈 선교사, 마다가스카르 의료 시스템 개발

대통령 의뢰로 의료인 양성 위한 교육 체계 준비... 교회의 기도와 협력 필요



*이 글은 아프리카미래재단 마다가스카르지부장 이재훈 선교사의 사역을 한국기독교공보(2022. 5. 18)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편집부 표현모 기자의 허락을 얻어 그 사역을 그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18년째 의료선교사로 사역 중인 총회 파송 이재훈 선교사가 최근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으로부터 오지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과 이를 위해 의학기술을 가진 인재를 양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훈 선교사는 마다가스카르 오지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코로나 확산 전인 2021년 2월까지 총 114회의 오지이동진료를 펼쳐왔으며, 교과서 한 권도 제대로 볼 수 없는 현지 의학도들을 위해 의학도서 보급 및 한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을 초청해 의사와 간호사들을 훈련시켜왔다.

이러한 헌신적인 봉사로 인해 이 선교사는 오지를 다니는 외과의사, 어려운 환경에서도 웬만한 수술을 다할 수 있는 의사로 소문이 나 젊은 의사들과 의과대학 학생들, 어린이들과 외국 선교사 자녀들 사이에서 인생의 롤모델로 추앙받으며 유명해졌다. 어느 마을에서

는 이재훈 선교사를 위한 노래인 '유명한 의사'라는 노래가 만들어져 유행이 되었을 정도다.

코로나-19 발생 후에도 이 선교사는 2800만 명 인구의 마다가스카르에 PCR 기기가 한대도 없이, 심지어는 의사들이 마스크도 없이 환자를 진료하다가 코로나에 걸려 죽기까지 하는 대책 없는 보건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한국 대사와 함께 코로나 대응사업을 펼쳐나갔다.

일단 보유하고 있던 수술용 마스크와 개인보호장비를 국립의과대학 의료인들을 위해 제공하고, 펀딩과 모금 등을 통해 10억 원 상당의 금액을 모금해 참사관 및 마다가스카르한인회 등의 도움으로 PCR 관련 기기와 음압기, 각종 임상병리 장비와 재료 부품 등을 구해 2개의 PCR 검사실을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9월 23일에는 주 마다가스카르 임상우 대사(현재 외교부 북미과장)와 함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선교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부탁을 받았다.

훈장 수여식에서 이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오지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다. 이 선교사는 이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며,

최소 300명의 인원을 길러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 의과대학에 통합진료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자 대통령은 즉시 보건부 장관과 의과대학 학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선교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사업 프리포질을 제출했고, 결국 지원한 50개 팀 중 2등으로 합격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 선교사는 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 조력자들을 얻기도 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미국의 서던일리노이대학(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의학교육팀에서 이 선교사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 개발에 전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한 미국에서 교수 활동을 한 은퇴 교수 몇 명도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GHC(Global Health Coverage)에 관여하고 있는 하버드대학교의 박기범 교수도 이 프로젝트가 사하라 이남의 가난한 나라를 위한 의료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선교사를 대학 강의에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의 한동대 최도성 총장도 마다가스카르 선교에 한동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300여 회원들이 있는 한동대 출신 의료

인 모임인 '청년한동'도 이 선교사와 MOU를 맺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계 각층의 도움 속에서도 이 선교사는 아직 걱정이 많다. 프로젝트는 점점 구체화 되고 그 크기도 커져가는 데 정작 자신은 세를 얻은 조그만 사무실에서 아내 박재연 선교사와 함께 이 많은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지금의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인력도 터무니없이 적어 새로운 사무실 건축과 인력 충원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선교사는 최근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1200평의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이다. 건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 선교사 부부가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기도 쉽지 않아 전문적으로 건축과정을 잘 아는 이의 도움도 필요하고, 건물을 완공시킬 재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훈 선교사는 “마다가스카르에는 의료인 수가 너무나 부족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이 너무 없어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부족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일이 너무나 커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다.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박상은 대표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

아프리카미래재단 15년 회고

2006년 늦은 봄, 아프리카 스와질란드에서 선교사님과 몇 분의 목사님들이 안양샘병원을 찾아 오셨습니다. 스와질란드는 인구 120만 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에이즈 유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곳 선교사님 말씀이 선교사의 주된 사역은 주중에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을 장례치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을 가보니 정말 한집 건너 에이즈로 부모가 죽어 고아가 된 아이들이 모여살고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아이들마저 분만시 수직감염과 수유를 통한 감염으로 모두 에이즈 양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의과대학이 없으니 나라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의대를 세우기 위하여 2007년 아프리카미래재단이라는 법인을 세우게 되었으며 아멘교회 조창환 목사님을 이사장으로, 샘병원 황영희 명예원장님을 공동대표로 법인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과 재단 사이에 재정투명성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서 재단은 아쉽지만 스와질란드를 떠나 말라위, 짐바브웨, 잠비아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으며 오히려 한 나라에 국한하지않고 아프리카 전체를 꿈꾸는 재단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라위에서 만난 백영심 선교사는 고대안암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관계로 고대의대 기독교생회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매월 후원금을 보내고 있었기에 서로 알고 있었는데 오지에서 만나니 반갑기 그지없었지만 한편 안쓰럽기도 하였습니다. 마침 대양누가병원 건축을 마친 터지만 원장을 맡을 의사를 아직 구하지 못하여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안양샘병원 감염내과 김은석 선생님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간호대 초대학장으로 김수지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사이버대 총장을 마치고 선교사역을 구상 중이시던 김수지 박사님이 남수단 이태석 신부의 '올지마 톤즈' 영화를 보시고 아프리카를 향한 마음이 열려있는 즈음에, 마침 귀국하여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백영심 선교사가 퇴원하자마자 찾아가 요청하니 즉석

에서 수락해주셔서 그 이튿날 말라위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말라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국제질병퇴치기금을 받아 에이즈 예방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 갈때 항공로에서 일인당 천원씩 떼어서 마련한 자금인데 코로나로 여행객이 줄어 이 기금은 현재 고갈되어 있습니다.

남자 청소년들의 가장 효과적인 에이즈예방법은 포경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봉사단원들이 길가에서 K-POP을 부르며 아이들이 모이는데 우리는 에이즈질병과 포경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부모님을 찾아가 싸인을 받아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조교제에 해당하는 Sugar Daddy 슈가대디로 인해 어린 여학생들이 용돈받고 성관계를 가진 후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남성들이 처녀와 잠자리를 하면 병이 낫는다는 가짜소문으로 수많은 어린 여성들이 질병에 내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에이즈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사업을 통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에이즈예방 사업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사이언스 잡지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잠비아는 여덟 개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프리카 남부 내륙 국가로 이곳에 세분의 아프리카 전설적인 간호선교사 중 한분인 전미령 선교사가 세운 치소모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을 처음 방문할 당시 전미령 선교사에게 제가 현지 의사 한 분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렸더랬습니다. 오래전에 호주에서 열렸던 국제기독의사대회에 저랑 같은 방을 사용한 룸메이트인 닥터 싱고고 였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잠비아 루사카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마침 병원 개설을 위해 현지 의사가 필요한 터에 초대 원장을 맡게되었고, 부인은 간호부장을 맡아 봉사하다가 새롭게 시작한 제라 간호보건대학의 학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작은 만남까지도 결코 내어버리지 않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새삼 깨닫습니다. 지금은 간호사 뿐 아니라 준의사까지 길러내는 국제보건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호기관이 아프리카에 와서 평생을 헌신하며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때로는 인술을 베풀어 많은 현지인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프리카의 모습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봉에서 평생을 의료봉사로 헌신한 슈바이처의 사역지를 가보면 황량한 벌판에 작은 기념클리닉 하나 세워져 있을 뿐 더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무지와 같았던 조선 땅을 밟은 에비슨과 로제타홀 등의 의료선교사들은 병원 뿐 아니라 의대를 세워 의료교육선교를 하였기에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길러내는 우수한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아프리카에 의료교육선교를 통해 아프리카에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가꾸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라위, 잠비아 외에도 짐바브웨에서는 아직 재활의학과의가 없는 그나라에서 소아재활센터를 만들어 재활치료사들을 길러내고 있으며, 탄자니아에서는 음로간질라 병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고 있고, 큰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오지에서 일할 의사들을 훈련시키는 통합의료센터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졸업생을 배출하는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과 DR콩고의 레버런드킴 의대와도 협력하며, 새롭게 의대를 세우려고 힘쓰는 에스와티니와 카메룬의 의학교육사업도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스와힐리어에는 미래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미래는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5여년 동안 아프리카를 50회 이상 오가며 변하지 않는 그들의 상황에 절망하기도 하지만, 찢어진 모기장으로 축구 골대를 만들고 폐지를 노끈으로 묶어 축구하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 그들의 눈망울 속에 아프리카의 미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가장 사랑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프리카의 미래가 되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그곳이 이제는 잠 한번 자고 나면 닿을 수 있는 너무도 가까운 이웃임을 깨닫습니다.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멀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함께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을 모읍시다. 코로나를 통해 깨달은 사실은 나 혼자만으로는, 우리 가족과 우리나라만 방역하고 잘 치료한다고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지구촌이 하나의 운명공동체이기에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15년간 한결같이 함께 해주신 선교사님. 봉사단원, 임직원, 후원자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하면 늘 마주하는 큰 벽화에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적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축하헌시

15

산샘 박재천(시인, 목사)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보냅니다

15주년은 20주년 향한 후반전
한해가 소중합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미래의 꿈이루는 미래재단

매일 새벽 아프리카 아프리카 영혼구원 무릎기도 드립니다

그동안 눈부신 활동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눈물의 기도와 성원 더 감동이라

육신의 병치료와 영혼의 구원 샘의 헌신이라

아프리카 구원은 지구별 남은 자 구원이라
말라위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사업
짐바브웨 잠비아 탄자니아 등 의료 섬김사역 등등

하늘에서 보시니 더욱 힘써 헌신하오리

값진 땀과 눈물 흘리는 현지의 사명자 위해
더욱 기도 성원 답지하시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면류관 상급받기까지 더욱 진력 충성하오리

그 섬김 나눔 사랑 길이길이 빛나라



AFF 15주년 감사예배 드려

아프리카미래재단(Africa Future Foundation)이 설립 15주년을 맞아, 7월 2일 토요일 안양감리교회에서 기념감사예배를 '15년의 감사, 나눔, 약속'을 주제로 개최했다. 지나온 15년간의 발자취를 나누고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며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2007년에 설립되었고 외교부 등록 후 아프리카 전문 국제개발협력 NGO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아프리카 16개국에서 보건 의료사업, 지역개발사업,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아프리카, 꿈꾸는 아프리카'의 모토를 갖고 아프리카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현지 의료진 양성 등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15주년 기념 행사는 총 3부로 이루어졌으며, '감사'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감사예배, 2부는 축사, 특별 공로패 표창, 선교사 파송, 홍보대사 위촉, 부대표 임명, 근속 및 공로패 표창, 3부는 홍보대사 축하 연주로 이어졌다. 설교는 오일영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총무), 시인 박재천 목사의 축시 낭송, 산본교회 원로 강운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나눔을 주제로 하는 제2부 기념식에서는 표인봉 목사가 사회를 하고, 특별 공로패 표창은 황영희 명예 이사장, 이현수 증경 이사장, 선교사 파송은 김덕 선교사(우간다 베데스다

병원)가 받았다. 또한, 디렉션선교회의 표인봉 회장이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K-DOC 조승국 대표가 부대표로 임명되었다.

근속 표창은 박상은 대표와 임용택, 김문훈, 최재걸, 신재호, 안상로, 전승만 이사, 부대표 홍순철, 이병원, 이용식, 직원 김억 사무총장, 안숙이, 김지혜, 윤혜란 등 모두 13인이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최관신, 김경식(DR 콩고), 조남홍(마보베르데), 이미재(라이베리아), 곽동현(가니), 윤명훈(세네갈 & 말리), 양승훈(에스와티니) 등 아프리카 지역 7개국의 신규 협력 선교사와 지부장이 허입, 임명되었다. 이날 축하행사에서는 그동안 아프리카 미래재단 사역을 위해 협력과 귀한 봉사를 한 17개 기관에 감사패 표창이 있었다.

'약속'을 주제로 한 제3부에서는 홍보대사 김원희 홍보대사의 사회로 1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역 중인 송솔나무 홍보대사와 박지혜 홍보대사가 특별연주를 했다.

박상은 대표는 기념사에서 "재단의 15년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지난 15년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의 감사, 나눔, 약속의 자리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 아프리카미래재단 사역과 운영에 대한

Q&A

Q 아프리카 미래재단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A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한국에서 설립 15년을 맞는 강소 NGO입니다. NGO사역을 위한 세계적인 기구들이 있지만,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아프리카만의 보건, 의료, 교육을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기구로서, 현재 한국본부와 미국본부, 아프리카 17개국에 지부와 협력기관을 갖추고 지부장들의 책임하에 사역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에 해외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본부는 2019년 4월에 IRS에 등록을 하고, 9월에 출범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Q 아프리카 미래재단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A 우선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정기적으로 아프리카 선교와 사역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로 참여할 수 있으며, 편리하고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한 기도는 가장 중요한 후원입니다. 후원금 가운데 연 250달러 이상은 매년 세금 보고시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도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A 개인과 사업체, 교회, 봉사단체, 가족 기금 등이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신 금액은 IRS가 정한 관계 규정에 따라 기부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와 주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인데, 다양한 NFO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봉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아프리카 지원과 연계된 사업만 합니다. 사업체나 교회, 작은 선교관계자 모임, 혹은 가족 선교단체 등에서 요청할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무료로 방문하여 AFF기관과 사역을 소개하고, 함께 할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아프리카 미래재단 후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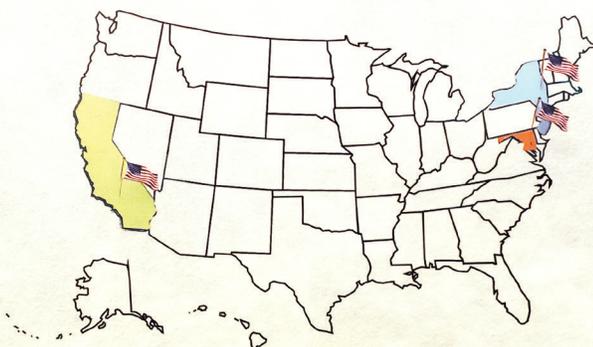
A 개인수표를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과 은행에서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송금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편리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회보 11면에 상세하게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Q 내가 내는 헌금이 그대로 아프리카를 위해 그대로 사용됩니까?

A 기부한 헌금은 아프리카 각 나라와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현지사역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사업 외에도 원할 경우 선교사를 지정하여 헌금할 수 있고, 심사하여 신분과 사역이 적합하면 그대로 본인의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때 7%의 수수료(송금수수료 등 실경비)가 공제됩니다. 우리 기관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데, 회보에 분기별로 헌금자 명단과 금액,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제공됩니다. 연 1회 회계 감사와 국제청 세금 보고가 이루어지고, 운영과 후원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글/사무총장 나삼진 목사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본부/지부



Los Angeles 본부

주소 : P. 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전화 : 714-732-1484

New York / New Jersey 지부

주소 : 1 Executive Drive Suite LL100, Fort Lee, NJ 07024
전화 : 201-218-2460

Washington DC 지부

주소 : 9198 Red Branch Rd. #H, Columbia, MD 21045
전화 : 301-821-7214



AFRICA FUTURE FOUNDATION NEWS

AFF 아틀란타 지부 설립

아프리카 미래재단 아틀란타 지부가 설립 감사예배와 사무소 개소식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 김억 한국 사무총장의 사회로 정일남 목사(어거스타담리교회)가 기도한 후 한국 AFF 임직원들의 특송에 이어 백대웅 목사(예수소망교회)가 'Spleen Pain'(마 14:13-14) 제목으로 설교한 후 축도로 설립 감사예배를 마쳤다.

제2부 지부 설립 및 사무소 개소식에서는 한국 AFF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박상은 대표가 한국 AFF를 소개한 후 사무소를 제공한 이경호 지부장이 병원 소개 및 지부 설립 경과보고와 임원 소개를 하였다. 이어 박상은 AFF 대표가 지부 인준서 및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의 말씀을 전했으며, 미주법인 김홍식 이사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박대권 선교사, 길리스 목사의 축하의 말씀이 있었다. 마친 후에는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아틀란타지부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미국 법인이사회와 협의중에 아틀란타 지부를 결성하고, 이경호 지부장(Hope Family Medicine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의 공간에 지부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20년 전 학생시절 때 박상은 대표와 인연을 맺은 후 그때의 의료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아틀란타 지부장으로서는 지역에서 홍보, 모금, 동역자들과 함께 아프리카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올해 가을 정비, 재출발하게 될 동부권 이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며, 홍보와 모금, 지부 고유의 활동을 함께 하게 된다. 아틀란타 지부의 주소와 연락처는 80 Horizon Dr. STE 304 Suwanee, GA 30024, 이경호 지부장 (575) 528-9478 이다.

Africa Future Foundation 아프리카미래재단

미주 아틀란타 지부 설립 및 사무소 개소식

- 일시 : 2022. 7. 17 (주일) 오후 5시
- 장소 : Hope Family Medicine / (80 Horizon Dr. STE 304 Suwanee, GA 30024)

제1부 지부 설립 감사예배 사회 / 김억 AFF KOREA 사무총장

- 찬 송 : 452장
- 기 도 : 정일남 목사 (어거스타담리교회)
- 성 경 봉 독 : 마태복음 14:13-14
- 특 송 : 한국 AFF 임직원 일동
- 설 교 : Spleen Pain / 백대웅 목사 (예수소망교회)
- 축 도 : 백대웅 목사

제2부 아틀란타 지부 설립 및 사무소 개소식 사회 / 김억 AFF KOREA 사무총장

- AFF 영상 상영 : AFF KOREA 김억 사무총장
- 한국 AFF 소개 : 박상은 AFF KOREA 대표
- 병원 소개 및 아틀란타 지부 설립 경과 보고 및 임원 소개 : 이경호 지부장
- 아틀란타 지부 인준서 및 현판 전달 : 박상은 AFF KOREA 대표
- 격려의 말씀 : 박상은 AFF KOREA 대표
- 축하의 말씀 : 김홍식 AFF USA 이사장
- 축하의 말씀 : 박대권 선교사 (네팔), 길리스 목사
- 광 고 : 사회자
- 마침/식사 기도 :



AFF, 소망 소사이어티 방문

아프리카 미래재단 대표와 미주본부 관계자들이 7월 20일 소망 소사이어티 본부(Cypress, CA)를 방문하고, 양 기관의 사역 정보를 교환하며 앞으로의 협력을 다짐하였다. 이날 방문은 한국 대표단의 미국 서부지역 방문을 기해 한국 박상은 대표, 김억 사무총장 및 실무진들과 미국본부 나삼진 사무총장 등 5인과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 사무국장 최경철 목사, 생명살리기운동 위원장 황치현 장로, 고문 신혜원 박사 및 실무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 기관 관계자의 인사 후 소망소사이어티 영상 시청에 이어 유분자 이사장이 소망소사이어티의 역사와 현황을 나누었고,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는 박상은 대표가 AFF 영상 소개와 함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하였다.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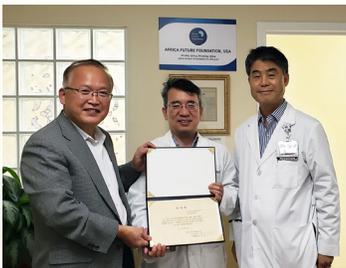
의견도 나누어졌다. 양 기관은 같은 15년의 역사를 갖고 소망에서는 시신기증사업 등 다양한 웰빙, 워다잉 사업과 함께 차드 우물과기 사업과 학교 설립 등이 이루어졌고, AFF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각 국에서의 사역의 현장이 있어 동질감이 교감되었으며, 앞으로 아프리카 사역에 대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1일 선교 세미나 개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7월 22일 오전 SEED USA과 함께 일일 선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상은 대표가 NGO사역을 중심으로 오늘의 현교현장에서 NGO사역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발표하고, 이어 김억 사무총장이 아프리카미래재단 사역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서부지역 선교사들과 SEED 관계자들 20여 명이 함께했다. 아프리카미래재단USA는 SEED USA와 앞으로 선교에 대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Journey for New Hope에 감사장 전달



오렌지카운티지역 의사 7인으로 구성된 Journey for New Hope (대표 송채원)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현금 15,000달러를 보내왔다. 이 단체는 오렌지카운티 서울 메디칼 그룹에 속한 의사들이 만든 비영

리단체로, 뜻있는 단체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에서는 Journey for New Hope의 귀한 뜻에 감사하며 이러한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22일 감사장을 전달했다.

아프리카 비전 트립 실시

아프리카미래재단은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중남부 아프리카 비전트립을 실시한다. 한국 AFF 창립 15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갖는 아프리카 비전 트립은 먼저 중남부아프리카 선교사대회에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실시하며, 선교사대회 후에는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을 방문하고 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주 남아공화국 한국대사관의 요청으로 한국과 남아공화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주간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팀은 잠비아 치소모병원과 제라보건대학을 방문하고, 다른 팀은 남아공화국 선교사역지를 탐방하고 빈민사역 과 교육사역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예약문의 및 참가 신청은 한국 은 (031) 342-9182 aff@africaff.orgfh, 미국은 이사를 이사과 지부 이사 및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본부와 이사회 가저

아프리카 미래재단 USA는 한국AFF 박상은 대표 등 대표단의 방문을 맞아 7월 22일 이사회 및 대표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미국본부 사역과 재정을 보고하고, 아틀란타 지부 설립 경과를 보고 하고, 10월에는 워싱턴DC와 뉴욕지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당분간 동부권(DC, 뉴욕, 아틀란타)와 서부권(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사회도 정비하기로 했다. 당일 모임에서는 그와 함께 향후 아프리카미래재단 USA의 조직과 사역의 발전 방향과 이사 영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AFF USA는 2021년 제라보건대학 강의동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화보로 구성했습니다.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 (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14-732-1484 (미국) +82) 31-342-9182 (한국)
aff@africaff.org
www.africaffusa.org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futurefoundation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송금하실 때
- 은행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 121000358
- SWIFT C : BOFAUS3N

선한 청지기들 2022. 4. 1 - 6. 30 / 재정보고

현금자 명단

Andrew / SoYoung Kim, Michelle Y. Lim, Simon Paek, Young Song, Andrew Pae, Michael H. Yang
김은식 김응원 / 김재선 김홍식 / 김정미 박형락 백형순 송은석 송영은 신영애 양해종 이승숙 이정임 이종호
이준현 이홍철 장수자 장국현 정진철 황길남 허지국 / 허영화 허정순 / 허철신
새벽이슬교회, OC살롬교회, OChan인교회, Livingstone Home Health, Journey for New Hope

* 혹시 이름이 누락된 경우 AFF 사무실 (714-732-148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전기이월	97,360.50
4월 현금	3,341.38
5월 현금	5,880.00
6월 현금	17,380.00
분기 수입	26,601.38
총수입	123,961.88

지출

사업비 1 / 남아공화국 AFF	3,000.00
마다가스카르 AFF	3,000.00
남아공 김경환 선교사	2,000.00
남아공 김재수 선교사	2,000.00
우간다 김세현 선교사	2,000.00
우크라이나 후원(CTS)	500.00
사업비2 / 지정현금 송금	
마다가스카르 AFF	1,860.00
김경환 선교사	930.00

사무비 / 발송비	269.72
뉴스 레터 편집 / 인쇄비	1,988.80
CPA 경비	650.00
PO Box 연회비	198.00
주검찰국 등록비	75.00
송금 수수료	90.00
분기 지출 소계	18,561.52
잔액(차분기 이월)	105,400.36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 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www.africaffusa.org

